

말씀대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시편16:8-11, 고린도전서15:1-8

정윤돈 목사님

“성삼위 하나님께서 우주만물을 창조하시되 오직 우리 인간만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시고 또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소통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신분과 권세 주신 것을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사단에게 속아 허물과 죄로 죽어서 이 땅에서 고통을 가지고 살다가 영원한 지옥에 갈 수밖에 없었는데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통, 희생, 대속과 결국에는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회복하시고 그 이상의 축복을 저희에게 주신 것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게 하시며 강단 메시지의 제자가 되어서 앞으로 237나리를 살리고 치유하는 자신과 가정 가문과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사역에 주역으로 쓰임 받는 중직자, 전도인, 성도들과 후대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그대로 우리의 삶 속에서 성취되고 열매낼 수 있도록 주께서 은총을 내려주옵소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는 부활절이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부활에 대한 메시지를 나누고자 한다. 들어가는 말씀에서는 우선 부활의 증거에 대하여 몇 가지 간단하게 설명 드리고자 한다. 부활에 대한 증거를 설명해야 하는 이유는 예수님 시대의 사두개인들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 부활의 사실에 대하여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이다. 첫째는 전통적으로 사용되는 몇 가지 부활을 부정하는 이론에 대하여 반증하는 내용들에 대하여 말씀드리겠다.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고대로부터 주장했던 이론에는 기절설과 도난설과 환상설이 있다.

1. 먼저 기절설이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이 아니라 기절했다가 일어나 도망쳤다는 주장이다. 그런데 이 기절설은 오히려 예수님께서 살아났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며 부활을 증명해 주는 주장이다. 예수님께서 분명히 십자가 사건으로 돌아가셨다는 증거가 있기 때문이다. 창으로 찔렀을 때 심장에서 물과 피가 함께 나왔다는 것이 사망의 증거이다. 요한복음 19장 34절에 ‘그 중 한 군인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라고 기록되어 있다. 이미 죽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찌른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 기절해서 눈을 떴다하더라도 온 몸은 세마포가 감겨있어서 움직이기 힘들었을 것이다. 손과 발은 못에 박혔다. 그러면 걸을 수 없었을 것이고 그 동굴무덤에서 나오려면 기어 나와야 했을 것이다. 게다가 그 동굴은 약 6톤의 돌로 막혀 있었다. 만약 동굴의 돌을 밀고 나왔다 하더라도 무덤을 지키고 있는 군인들에게 잡혔을 것이다.

2. 두 번째는 도난설이다.

(1) 먼저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시체를 가져가 숨겼다는 주장이다. 이 주장이 말이 안 되는 이유는 예수님의 12제자 중 10명이 순교했기 때문이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리스도의 부활을 목격하였기 때문에 평생 부활의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았고 순교하였던 것이다.

(2) 다음은 유대인의 지도자들이나 로마 정부에서 예수님의 시체를 숨겼다는 주장이다. 만약에 그랬다면 초대교회 성도들이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일어났을 때 그들은 예수님의 시신을 보이면서 “여기 봐라 시체 여기 있다.”라고 말했을 것이다. 그러므로 도난설로는 그리스도의 부활을 부정할 수 없다.

3. 다음은 환상설이다. 환상설이란 잘못 보았다는 것이다. 그 주장이 말이 안 되는 이유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여러 번 여인들과 제자들에게 나타내셨다고 기록되어 있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고린도전서 15장 6절에는 오백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였다고 기록되었기 때문이다. 동시에 여

러 사람이 환상을 볼 수는 없다. 그러므로 환상설도 성립될 수 없다.

(2)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는 역사적인 인물이 아니라는 것이다. 즉, 예수 그리스도는 역사상 실제 존재했던 인물이 아니라는 주장이다. 그러나 인류 역사에서 예수 그리스도처럼 많은 영향을 끼친 인물은 존재하지 않는다. 예수 그리스도가 존재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면 100년 이전 인물은 그 누구도 존재했다고 증명 할 수 없을 것이다.

(3) 세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기록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등 4복음서는 믿을 만한 것이 못 된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오히려 이 네 사람이 사복음서를 기록했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존재와 부활이 사실이었음을 증명해 주고 있다. 특히 마태는 세리였고 마가는 예수님의 직접 제자가 아니었고 누가는 이방인이며 바울의 제자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시 모든 유대인과 초대교회성도들은 이 말씀을 성경으로 받아들였다. 그리고 당시 수많은 유대인들은 2000년이 넘는 신앙의 전통과 여호와 유일신을 믿었던 철저한 유대주의신앙을 버리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순교까지 하였다.

이러한 역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사실이었다는 것 외에는 설명할 방법이 없다. 그러나 부활은 설득되는 것도 증명되는 것도 아니며 믿음과 성령의 은혜로 받아들여질 수 있는 것이다. 다음으로 본문의 말씀에서 구약에서 예시된 부활의 말씀과 부활의 의미 그리고 부활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목표와 미션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나누고자 한다.

1. 먼저 구약에서 예시된 부활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한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서 4절에 보면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라고 말씀하셨다. 여기서 말씀하는 성경은 구약성경을 말한다. 그렇다면 구약성경에 예표된 부활에 대한 말씀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 대표적인 말씀 몇 가지를 나누겠다.

(1) 아브라함에 이삭을 반제로 바친 사건이 부활신앙을 예시하고 있다. 신약성경 히브리서에서는 이를 설명해 주고 있다. 히브리서 11장 19절이다. ‘그가 하나님에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릴 줄로 생각한지라 바유권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아브라함에게는 부활의 믿음이 있었다. 그 부활의 믿음은 우리의 생사회복을 주권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인 것이다. 우주만물을 말씀 한 마디로 창조하셨는데 하나님께서는 살릴 수 있고 죽일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것이다. 아브라함은 이삭을 살릴 수 있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얼마든지 그 상황에서 불만불평 할 수 있었을 것이다. 여러분도 완전 부활의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바란다. 조금도 부족함이 없으신 분이 우리의 아버지이시다.

(2) 요나가 물고기 배속에서 밤낮 사흘 동안 있다가 살아난 것도 부활을 예시하고 있다. 요나서 1장 17절이다.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요나가 밤낮 삼 일을 물고기 뱃속에 있니라’

(3) 다윗과 시편기자들도 부활을 이야기하고 있다. 시편 16편 9절에서 10절이다.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스올(지옥)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이니이다’ 예수님을 대신해서 시편기자가 고백한 것이다.

(4) 아시아 선지자도 부활을 명확히 말씀하고 있다.

① 아시아 25장 18절에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있다. ‘사망을 영원히 멸할 것이라 주 여호와께서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씻기시며 자기 백성의 수치를 온 천하에서 제하시리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② 아시아 26장 19절에는 ‘주의 죽은 자들은 살아나고 그들의 시체들은 일어나리이다’ 타끌에 누운 자들이 너희는 깨어 노래하라 주의 이슬은 빛난 이슬이니 땅이 죽은 자들을 내놓으리이다’ 말하고 있다. 구약성경에서

나온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된 것이다. 유대인과 로마사람들은 자기의 방식대로 성경을 해석하고 믿지 않았다. 그래서 여러분이 강단메시지의 제자가 되기를 바란다. 나에게 맞는 말씀은 '아 맞다.' 붙잡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목사님을 통해서 주신 메시지를 붙잡고 나의 수준과 표준과 기준을 이 말씀으로 바꿔야 하는 것이다. 부활의 능력이 여러분과 함께 있기를 바란다.

2 부활의 의미와 부활을 통하여 우리들에게 주시는 절대 목표와 미션이다.

(1) 부활의 의미이다. 부활의 의미를 되새기는 것은 너무 중요하다. 안식일이 주일로 변한 것은 부활 때문이다. 주일날 아침에 부활하셨다. 그래서 우리는 매주, 매일 부활절을 누리고 체험해야 한다.

① 부활이란 그리스도의 구원사역이 사실상 완성된 사건이다.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셨지만 이것은 부활을 전제로 하는 것이다. 구원사역의 최종적인 완성은 주님께서 부활하실 때이다.

② 부활이란 예수 그리스도만이 메시아이심을 증명해 주는 사건이다. 역사상 자신의 생명을 희생한 훌륭한 의인들이 많았다. 그러나 그분들은 우리들의 구원자 메시아는 아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구원자임을 믿기를 바란다.

③ 부활사건은 죄, 사탄, 지옥의 권세가 완전히 박살난 사건이다.

④ 부활사건은 말씀성취의 사건이다. 구약의 많은 예언의 약속들이 성취된 사건이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았다. 즉, 부활의 성취는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증명해 주는 결정적인 증거가 되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언약의 말씀을 굳게 붙잡고 이미 성취됨을 믿어야 한다.

⑤ 부활사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며 창조주이심을 증명하는 사건이다.

⑥ 부활의 의미는 예수님께서 친히 우리도 예수님처럼 부활하여 영생할 수 있음을 증명해 주시는 모델적인 사건이다.

⑦ 부활은 성도들에게 있어서는 영적인 힘의 원천이다.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과 그 후에 많은 성도들이 기쁜 마음으로 순교까지 할 수 있었을 뿐만 아니라, 죽음 앞에서도 용기와 소망을 잃지 않고 신앙을 지킬 수 있었던 확실한 이유와 근거가 되었던 것이다. 성도들이 많이 좌절하고 넘어지는데, 초대교회의 신앙으로 돌아가야 한다. 부활의 신앙, 믿음으로 풍성하기를 축원드린다.

⑧ 부활은 창조뿐 아니라 재창조의 능력을 보여주시고 그 능력을 우리에게도 부여해 주시는 하나님의 절대주권과 절대능력을 보여주는 사건이라고 할 수 있다.

(2) 다음으로 부활하신 주님께서 성도들에게 부여하신 절대목표와 미션이 무엇인지를 말씀드리고자 한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최초로 부활을 목격한 여인들과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은 '평강'이었다. 진정으로 복음과 그리스도를 누리는 사람들은 불안하거나 집착하거나, 조급하지 않고 어떤 환경과 조건 속에서도 평강을 누릴 수 있어야 한다. 이것이 참된 복음을 누리는 성도들의 영적인 상태이다.

① 요한복음 20장 19절이다. '이 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② 요한복음 20장 21절이다.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③ 요한복음 20장 26절이다.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3) 부활 후 그리스도께서 주신 절대목표는 '내 양을 먹이라'는 것이다. 예수님께서 자신을 3번이나 부인한 베드로에게 천명, 소명, 사명을 주신

것이다. 베드로에게 영세 전부터 예정된 천명은 '내 양을 먹이라'는 것이었다. 오늘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주신 소명은 오늘 내가 처해 있는 그 상태와 그 자리에서 '내 양을 치라'는 것이다. 또한 앞으로 베드로가 미래에 감당할 사명은 '내 양을 양육하라'는 것이다. 이 말씀은 베드로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이 아니다. 이 말씀은 초대교회의 모든 성도들로부터 오늘 우리들에게까지 부탁하시고 명령하신 하나님의 절대목표이다.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치고 보살피고 양육하라는 것이다.

(4) 다음으로는 부활하신 주님은 세계복음화에 대한 목표와 미션을 주셨다.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에 '모든 족속으로', 마가복음 16장 15절에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사도행전 1장 8절에는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는 부활메시지를 주셨다.

(5) 부활하신 주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들에게 주신 절대목표와 미션은 모든 현장에서 부활의 능력과 재창조의 능력을 보여주라는 것이다.

① 먼저 내 자신의 영혼과 마음과 생각이 부활의 능력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재창조되어야 한다. 그 방법은 복음소식의 암송과 복음요절과 말씀의 암송과 깊은 기도를 통해 가능하다.

② 다음으로 우리 가정과 후대 위에 부활의 능력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의 축복이 날마다 넘쳐야 할 것이다. 우리가정과 현장에서 부활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 그 방법이 바로 내가 십자가에서 죽는 것이다. 먼저 죽어야 부활을 체험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내가 희생하고 죽을 때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도 직장도 살리게 되는 것이다. 이것이 7명의 랍넌트들이 살았던 방법이다. 그들은 남을 비난하지 않았으며 오히려 적을 도왔다.

③ 마지막으로 모든 성도들과 후대들이 부활의 믿음으로 정치, 경제, 문화 등 모든 분야를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 수 있어야 하겠다. 이 응답을 받기 위해 우리는 62가지 전도자의 삶속으로 들어가야 한다. 이러한 소중한 하나님의 사역에 주역으로 쓰임 받는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드린다.

오늘은 그리스도의 부활 안에서 우리들에게 주신 CVDIP를 찾으면서 말씀을 마무리 하고자 한다.

1. Covenant, 언약이다. 우리들의 언약의 결론은 그리스도께서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부활하셨다는 말씀이다.

2. Vision, 비전이다. 우리의 영원한 비전과 삶의 이유는 1천만제자를 세워 237나라에 부활의 믿음을 증거 하는 것이다.

3. Dream, 꿈이다. 우리들이 만약 24시간 부활하신 주님을 목상하고 부활의 주님을 증거한다면 우리들의 모든 꿈은 이루어 질 것이다.

4. Image, 기도이다. 날마다 서밋타임을 정해서 부활의 주님을 전 세계에 증거하는 기도의 여정을 갖기를 바란다. 그 집중했던 기도가 반드시 성취될 것이다.

5. Practice 실천이다. 이번 한주간은 부활의 말씀과 부활의 의미를 목상하고 나의 삶속에 부활의 능력을 적용해 보시기 바란다.

부활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기 때문에 불가능한 것이 없다. 날마다 부활의 능력을 보여주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란다. 부활하신 주님의 은혜와 재창조의 능력이 모든 성도들 위에 함께 하시기를 축원드린다.

"사랑의 주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부활절에 사랑하는 성도들이 모두 함께 모여서 예배드릴 수 없어서 개인적으로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드리기도 하지만, 그 현장에 축복을 내려주셔서 30배, 60배, 100배의 은혜가 넘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어려움을 통해서 오히려 협력하여 선을 이루며 우리 교회가 더 크게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그릇으로 준비되어지는 축복의 여정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립니다. 아멘"